

# I 鵝溪遺稿 小考

車柱環

1963年7月부터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는 1年半 동안 筆者는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에 收藏된 奎章閣圖書 및 古圖書에 들어있는 資料를 중심으로 하여 韓國歷代文集의 基礎的인 研究에 종사해 왔다. 基礎調查를 土臺로 하여 整理 對照한 結果 古圖書, 昌慶苑內 藏書閣 및 國立圖書館에 들어 있지 않고 奎章閣圖書에만 들어 있는 韓國文集이 310種이나 있음을 알게 되었다. 鵝溪遺稿는 그 가운데의 하나다.

鵝溪遺稿는 宣祖朝에 두 차례나 領議政을 지낸 李山海(1539~1609)의 詩文集으로 奎章閣圖書에는 4761, 5322 二種이 있다. 이 二種의 鵝溪遺稿는 同版本으로 6卷3冊(第1冊 91葉, 第2冊 99葉, 第3冊 102葉), 木版本, 半丁 9行, 1行 20字, 注雙行, 4761은 完本으로 弘齋·震章·侍講院·春坊藏·帝室圖書之章 등 多數의 藏書印이 찍혀 있고, 5322는 第3冊 卷6 第19, 48~53葉 都合 7葉이 없고 그 자리에 白紙가 插入되어 있으며 弘文館·帝室圖書之章이라는 藏書印이 찍혀 있다. 藏書印으로 보아 前者は 본래 世子教育을 擔當하던 侍講院에서 使用하던 것이었고 後者は 弘文館에서 閱覽하던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後者만 保存되었으면 鵝溪遺稿의 完本은 남아 있지 못하게 될번 하였다

本書의 編次는 一般 韓國文集의 文類別에 따른 그것과는 迥異하다. 卷1~3은 箕城錄이라는 大題下에 詩와 文章이 들어 있고 卷4 第1行에는 後集이라 注記되어 있으며 同卷에는 鍾峴錄, 乞歸錄, 雙門錄, 街隱錄, 奉使錄, 東門錄, 南郭錄, 省墓錄, 北方錄, 鷗浦錄, 柿田錄, 鷗浦後錄, 壩上錄, 露梁錄都合 14錄이 들어 있고 거기에는 다 詩가 收錄되어 있다. 卷5.6은 疏類, 筈類, 跋類(以上 卷5), 記類, 序類, 銘類, 誌類, 祭文, 賦類(以上 卷6)의 標題로 文類別에 依해 編次되어 있다.

箕城錄自跋 以外에는 序跋·附錄 등이 全無하여 成書의 緣起를 알아볼 線

索을 찾아보기 힘들다. 詩 2 卷, 文章 1 卷으로 되어 있는 箕城錄에도 詩 2 卷 끝에 自跋이 붙어 있다. 이 自跋은 宣祖 27 年(1594)에 山海가 手撰한 것으로 적어도 箕城錄의 詩 2 卷만은 山海가 自編한 것이 分明하다. 箕城錄은 壬辰倭亂 後에 山海가 政治에서 失脚하여 謫居한 3 年 동안의 詩文이다. 鍾峴錄 以下 14 錄은 山海의 生涯의 特定한 時期를 區劃하여 그 時期에 製作된 詩를 모아 놓은 것들이다. 그중에는 불과 1·2 首의 詩를 收錄한 데 그 친 것도 있다. 推測하건대 이 14 錄도, 箕城錄의 詩文을 編次한 후에 撈拾한 諸篇을 山海가 直接 時期別로 區劃 編次한 것일게다. 卷 5·6에 收錄된 跡劄를 비롯한 諸篇은 山海 死後 그의 子孫이 文類別로 整理하여 追錄한 것으로 보인다.

箕城錄의 詩는 放逐中의 孤臣의 戀君之情, 謫居中에 前後해서 妻·子·女를 잃은 괴로움, 謫所의 風情 등을 吟詠한 것으로 懷愴·淒悲한 情이 流露되어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達觀이라든가 諦念이라든가 하는 것이 거의 나타나 있지 않아서 領議政까지 지낸 사람의 老境의 詩로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山海는 達村記에서 자기의 謫居生活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屋無庭，纏三四間，蓋以瓦茅木皮，而木皮居其半。炊爨則烟常滿室，雨則簷笠而坐。主人爲余作草亭於西岡之上，晝則坐臥眠食，未嘗不於是焉。興至則烏巾筇竹，徘徊峯嶺之頂，時或短童羸馬，往來獨詩於棠渚之間，不知此身之爲遠客也。

이 達村記를 비롯한 20 篇에 達하는 遊記는 嶺東의 寒村을 中心으로 한 自然山水를 遊賞한 글들인데, 年老者의 글이라고는 도저히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文章에 生氣가 動盪한다. 梧谷蓮塘記에서 그는 蓮꽃의 形容을 描寫하고 婆折하는 蓮꽃에 自身을 比喻하여 그는 이렇게 말했다.

余則非遯世者也，乃見棄於時者也。雖無馨德之可觀，而其終之零落萎折，則頗相類。故余誠感而悲之。

望洋亭記 前半에는 山海의 獨特한 文章觀이 披瀝되어 있어 그의 文章을 理解하는데 한 도움이 된다. 文章도 좋고 하여 그一部를 節錄하여 두기로 한다.

……及謫嶺東，過洛山而觀日出，過臨瀛而望鏡浦寒松之勝，過召公臺而望蔚陵之縹渺，中心已自喜幸，而及登望洋亭，見天容海色之蒼然淵然，而其大無外，其闊無涯，其深無極，然後始有以盡平生之壯觀，而浩浩乎胷中若與曩時異矣。百川滔滔，日夜不止，則知氣之必養其本原，而爲文不可不混厚深遠。三光繞天，出沒無停，則知氣之不使有間斷，而爲文不可不純實猛健。蛟龍鯨鯢，噴薄紛掣，則知氣之務要雄勇，而爲文不可不動盪發越。蜃樓鰲嶼，隱現明滅，則知氣之務要沈着，而爲文可不奇古幽眇。風濤怒號，振撼坤軸，銀山玉峯，素車白馬，橫馳逆走於雪花冰雹之中，則知氣之務要凌厲，而爲文不可不巉截峻拔。風恬波靜，鏡面如拭，上有一天，下有一水，而水天相涵於空明無有之中，則知氣之務要凝定，而爲文不可不博厚淵泓。凡天地之間，萬物之變，可驚可愕，可喜可娛，使人憂，使人悲者，無不收攬於是亭之上，而助吾之氣，則其發於文者，衆體百態，無不兼備，而其視前日之記誦剽竊者，果何如也！

安堂長傳，安孝子傳，安主簿傳，金原城傳，循吏傳 5 傳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忠孝・異德之人을 다른 것들로 山海의 人物觀의一面을窺知하게 하는文章들이다.

山海는 平生동안 많은 詩를 지었으나 다 버려버리고 모아두지 않았다고 上記 自跋에서 말했다. 그러나 後集이라고 区別된 卷4 이하의 詩도 그 量이 이미 적지 않다. 箕城錄에는 數篇의 古體詩가 있으나 後集 鍾峴錄 이하에는 다 五・七言 律絕이다. 山海詩는 感興・寄懷・寫景・行役 등 贈答・次和한 篇什 이외의 作이 많은 편인데, 情志의 表露가 克明하고, 文辭의 雕飾은 없으나, 獨特한 氣韻이 돈다. 疏密는 大部分 乞退・辭職에 관한 것들이다. 陳弊剗 3篇은 다 3,000 言에 達하는 長文으로, 募兵募粟의 効率的인 方法, 屯田煮鹽策, 人材選任策 등을 開陳하고 있다. 序跋・記文・墓祭文 등은前述한 箕城錄의 散文과 文章上의 性格은 비슷하나 儀禮的이고 形式的인 것이 많다.

李山海는 字는 汝受, 號는 鵝溪・終南睡翁・柿村居士, 韓山人으로 中宗 34年(1539) 漢陽에서 出生, 5 歲 때부터 그의 季父 土亭 之菡 밑에서 글을

배웠다. 明宗 13 年(1558) 進士試를 거쳐 同 16 年(1561)에 登第, 翌年 弘文正字로 시작하여, 湖堂賜暇를 받은 후, 諸職을 歷任 領議政까지 지냈다. 宣祖 21 年(1588) 光國勳에 參하여 鵝溪府院君을 封했다. 壬辰倭亂 때 西狩論을 固執한 것으로 彰劾을 받아 罷職, 平海로 付處되었다가 3 年後에 즉 宣祖 28 年(1595)에 放還, 宣祖 32 年(1599)에 再次로 領議政이 되었으나, 翌年 다시 罷職되어 漢陽의 한 셋집에 退處해 있다가 光海 1 年(1606)에 卒했다. 山海는 早年부터 시작하여 長期間 朝廷에서 要職에 있었고 또 壬辰倭亂을 前後한 大變動期에 議政을 지내는 등 하여 여러가지로 사람들의 批判 내지 非難을 받았다. 山海는 平居時에는 恂恂謹厚하고 變亂에 臨해서는 配慮가 深遠하고 操守가 確固하였고 自己에 닥쳐오는 謗謗 · 憂傷 · 橫暴 등을 다 마음 속으로 自己를 反省하는 契機로 만들고 他人을 怨尤하는 氣色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筆者：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副教授〉